

2023
**고2 연매
 지학사**

고2 언어와 매체 지학사 | 4(1)(3) 근대 국어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1. 자료를 바탕으로 근대 국어 시기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주로 출제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병, △’, ‘·’의 소실
 - 중세 국어 시기를 거치면서 자음 ‘병, △’은 소멸됨.
 - 모음 ‘·’는 16세기 말 둘째 음절 이하에서 ‘—’로, 18세기에 첫째 음절에서 대체로 ‘ㅏ’로 변함.
- 모음 조화의 약화: ‘·’의 소멸로 모음 조화를 지키지 못하게 됨.
- 구개음화
 - ‘ㄷ, ㅌ’이 ‘ㅣ’ 앞에서 그대로 소리 나던 것이 근대 국어 시기에 ‘ㅈ, ㅊ’으로 음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 결과가 현대 국어까지 이어짐.
- 주격 조사: 모음 아래에서는 ‘가’, 자음 아래에서는 ‘이’가 쓰임.
-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 ‘-았-/-었-’이 이 시기에 확립됨.
- 명사형 어미 ‘-기’가 널리 쓰이게 됨.
- 한 문헌 안에서도 이어적기, 거듭적기, 끊어적기가 섞여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표기가 보임.

2. 교과서 외부의 자료를 활용하여 근대 국어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주로 출제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관북유람일기』에 나타난 근대 국어의 특징
 - ‘홍식이거룩하야’에서와 같이 단어의 원형을 밝히는 끊어 적기가 사용되었으나 ‘물밋출’과 같은 거듭 적기도 사용됨.
 - ‘물밋출, ㄹ흔’처럼 ‘ㄷ’을 제외한 7개 자음만을 받침으로 적음.
 - ‘붉은, 물’처럼 양순음으로 인한 원순모음화가 일어남.

지문 분석

근대 국어 시기(국어사 시대 구분 3단계. **별도의 지문 없이 국어사의 시대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는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안으로는 자생적인 근대 의식이 싹트는 한편, 밖으로는 중국을 통해 새로운 서양 문물과 과학 지식 및 기독교 문화가 유입되는 시기였다.]([]: 근대 국어 시기 국내외 사회적 변화 양상) 이와 같은 **언어 외적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이 시기의 우리말 또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면서 음운, 어휘, 문법 등 언어적인 면에서도 앞 시대의 국어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역사적으로 격변기인 만큼 국어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음.)

▶ 근대 국어의 시대 구분

전반적으로 근대 국어는 시기적인 측면에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을 뿐 아니라 **음운, 어휘, 문법 등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를 이어 주는 중요한 고리의 역할**(근대 국어 시기의 가치)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어의 기본적인 특징들은 대체로 고대 국어부터 현대

국어까지 공통되는 것이지만 **현대 국어의 특징이라 할 만한 것 가운데에는 근대 국어 시기의 변화에서 비롯된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이다.**(근대 국어 시기의 변화 거치며 현대 국어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함.)

▶ 근대 국어 시기의 탐구 가치

1) 음운

중세 국어 시기를 거치면서 자음 'ㄹ' (15세기 중엽부터 '[w]'로 바뀌기 시작함.), 'ㄷ' (15세기 말~16세기 초에 걸쳐 소멸)은 소멸되었고, [모음 '·'는 16세기 말에 둘째 음절 이하에서 'ㅡ'로 변하였고(1단계) 근대 국어 시기인 18세기에 와서 첫째 음절에서 대체로 'ㅏ'로 변하였다.(2단계)] ([]: 모음 '·'의 변화로 나타난 변모 양상)

['·'의 소실]

- 1단계(16세기 말): 둘째 음절 이하 '·' → 'ㅡ'

예) **ㅎ몰며 > ㅎ믈며, 닳다 > 닳르다**('·'가 'ㅡ'로 바뀌며 모음 조화가 무너지짐.)

- 2단계(18세기): 첫째 음절에서 '·' → 'ㅏ'

예) **리년 > 래년(來年), 돌팡이 > 달팡이**

▶ 음운 변화의 양상과 특징

'·'의 변화가 어느 정도 완성되자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모음 '·'의 변화 때문에, 소리와 달리 표기에서는 여전히 '·'가 사용됨. **근대 국어에서 대한 적절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서 '모음 '·'의 표기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의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하였다. '·' 자체는 **양성 모음으로서 모음 조화에서 음성 모음 'ㅡ'와 대립**('은/은, 룰/를' 등이 모음 조화에 따라 사용됨.)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첫째 음절에서는 양성 모음,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음성 모음으로 변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지 않게 된 이유) 자연스럽게 모음 조화를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모음 조화를 잘 지키던 'ㅁ솔'(양성+양성)이란 단어가 '·' 소멸 과정을 겪은 후에 'ㅁ을'(양성+음성)이란 형태로 변하여 한 단어 내에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공존하는, 즉 모음 조화를 지키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

▶ '·' 변화로 나타난 변모 양상

근대 국어 시기에 발생한 구개음화는 자음의 변천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음운 현상이다. 이전 시기까지 'ㄷ, ㅌ'이 'ㅣ' 앞에서 그대로 소리 나던 것이 이 시기에 와서 'ㄷ, ㅌ'으로 **음운 변화**(근대 국어 시기의 구개음화 현상. 현대 국어에서와 달리 형태소 내부에서도 변동이 일어남.)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 결과가 현대 국어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디다>지다[落], 티다>치다[打], 부터>부처[佛]'(구개음화의 결과가 반영된 상태로 단어의 형태가 고정됨. 현대 국어에서는 형태소의 경계에서만 구개음화 현상이 남아있음. **단어의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에서 "동-'이 '종-'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ㅣ, ㅏ, ㅑ, ㅓ, ㅕ' 앞의 'ㄷ'이 'ㄷ'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등에서 구개음화를 확인할 수 있다.

[구개음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이 구개음 'ㄷ', 'ㅌ'이 되거나, 'ㄷ' 뒤에 형식 형태소 '히'가 올 때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이 'ㄷ'이 되는 현상. '굳이'가 '구지'로, '굳히다'가 '구치다'로 되는 것 따위이다.

▶ 근대 국어 시기에 발생한 구개음화 현상

2) 어휘

[어휘 면에서는 기존의 한자어에 더하여 **서양의 새로운 지식이 중국을 통해 유입**(어휘 체계에 영향을 준 역사적 상황. **근대 국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서 '중국을 통한 서양 문물과 문화의 유입으로 새로운 어휘가 나타났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되는 과정에서 **번역 한자어**(한자식 외래어)가 새로 유입되

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중국 이외에 **일본이나 서양과의 접촉을 통해 유입되는 새로운 어휘**(한자어와 구분되는 외래어)가 늘어난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다. '자명종(自鳴鐘)', '천리경(千里鏡)' 등이 근대에 새로 들어온 한자어이다.]([]: 근대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 서양 문물을 가리키는 말이 한자식 외래어로 유입됨.)

▶ 중국을 통한 서양 문물의 유입 과정에서 번역 한자어의 유입이 증가함.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어휘 체계**(삼분 체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두 계열에 더하여 일본과 서양의 외래어가 유입되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으며 이러한 양상은 **현대까지 지속**(현대 국어에서도 새로운 문물의 등장 등으로 인해 외래어가 계속 추가되고 있음.)되고 있다.

▶ 근대 국어 시기의 국어 어휘 체계가 삼중 체계로 굳어짐.

③ 문법

문법 변화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주격 조사 '가'의 등장**(근대 국어 문법 변화 ① - 격 표시 변화. **근대 국어 자료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서 '중세 국어 시기에 사용된 주격 조사 '이'가 모두 근대 국어 특징의 하나인 주격 조사 '가'로 통합되어 표기되었다.'의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이다. [현대 국어에서 **선행되는 체언의 어말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근대 국어 시기 주격 조사 '이'와 '가'가 교체되어 나타나는 언어 환경) 주격 조사 '이'와 '가'가 교체를 보이는 현상은 바로 이 변화에 말미암은 것이다.]([]: 주격 조사가 쓰이는 환경이 현대 국어와 동일해짐.) [대부분의 역사적 변화가 그러하듯이 새로운 주격 조사 '가'는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었다. 체언의 말음이 모음 'ㅣ'인 경우와 같이 일부 제한된 환경에서 나타나다가 서서히 그 쓰임을 넓혀 가서 모음 아래에서는 '가', 자음 아래에서는 '이'가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현대 국어와 달리 근대 국어 자료에서는 과도기적 양상으로 인해 사용에 혼란이 있었음.)

▶ 주격 조사의 변화

또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 '-았-/~었-'이 이 시기에 확립**(근대 국어 문법 변화 ②. 근대 국어 과거 시제 표현 방식)되었으며, 앞 시기에 **객체 높임법이 사용되던 선어말 어미 '-습-'은 상대 높임법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의 변화**(근대 국어 문법의 변화 ③. 중세 국어에서 객체 높임을 나타내던 '-습-'의 형태가 현대 국어에서는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습니다'에 남아 있게 됨.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높임 표현을 비교하며, 근대 국어 시기에 일어났을 변화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를 보인다. **명사형 어미 '-기'가 널리 쓰이게 된 것**(근대 국어 문법의 변화 ④. 중세 국어 시기에 사용되었던 명사형 어미 '-음/음'의 형태가 '-음/-ㅁ'으로 바뀜.)도 근대 국어 시기의 중요한 특징이다.

▶ 근대에 변모된 시제 표현 방식

④ 표기법

중세 국어 시기에 **음소적 원리와 음절적 원리**(중세 국어 시기의 표기법의 원리)에 따라 정연하게 지켜지던 표기법은 근대에 와서 상당히 혼란한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사름미'로 표기되던 것이 '사롬이'로 표기되기도 하고 '사롬미'와 같이 표기되기도 하였다. '사름미'와 같은 표기를 **이어적기**(한 음절의 종성을 다음 자의 초성으로 내려서 적음.), '사롬이'와 같은 표기를 **끊어적기**(여러 형태소가 연결될 때 각 음절과 성분 단위로 밝혀 적음.), '사롬미'와 같은 표기를 **거듭적기**(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동시에 나타남.)라 한다.]([]: 근대 국어 시기에 나타난 표기법 - 이어적기(연철), 끊어적기(분철), 거듭적기(혼철), **근대 국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서 '중세의 이어적기 표기가 현대의 끊어적기 표기로 가는 과도기로 거듭적기 표기가 나타났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 근대 국어 시기의 표기법의 변화 - 음소적 원리와 음절적 원리의 혼란 양상

근대 국어 시기의 경우 **한 문헌 안에서도 이어적기, 거듭적기, 끊어적기가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중세 국어의 이어적기에서 현대 국어의 끊어적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표기가 나타남.) 『훈민정음』을 기준으로 정연한 표기 방식을 보이던 중세 국어 시기와 달리 이 시기에는 **표기법의 기준이 될 만한 규범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근대 국어 시기에 표기에 혼란이 나타난 이유) 이러한 양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 근대 국어 시기의 표기법 혼란

학습 활동 분석 1

다음 활동을 통해 **근대 국어 시기에 일어난 어휘의 의미 변화**(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보자.

(1) 다음은 중세 국어에서 근대 국어로 바뀌는 동안 의미 변화가 있었던 단어들이다. 빈칸을 채우고 의미 변화를 확인해 보자.

	중세 국어	근대 국어
어엿브다	불쌍하다	예쁘다
어리다	어리석다	나이가 적다

(2) 다음은 근대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형태가 같지만 그 의미가 변한 단어들이다. 빈칸을 채우고 의미 차이를 확인해 보자.

	중세 국어	근대 국어
인정(人情)	벼슬아치들에게 몰래 주던 선물.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심정.
방송(放送)	죄인을 감옥에서 나가도록 풀어 주던 일.	라디오나 텔레비전 따위를 통하여 널리 듣고 볼 수 있도록 음성이나 영상을 전파로 내보내는 일.

→ (1)과 (2)에서 제시된 단어들은 모두 의미 변화의 양상(확대, 축소, 이동) 중 '의미의 이동'에 해당함.

(예시 단어를 단어의 의미 변화 양상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 활동 분석 2

다음은 『중간노걸대언해』의 한 부분이다. 잘 읽고 아래의 활동을 통해 근대 국어의 특징을 알아보자.

→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의 음운의 변천을 이해하는 활동

<p>우리 서울 가면 어딴 머므러야(이어적기) 죠흐료 우리 順城門(순성문) 官店(관점)에 가서 머므자 저괴셔 몰 저제 가기 쏘(스계 합용병서) 저기(이어적기) 갓가오니라 네 니르미 올타(이어적기) 나도 므옴애(끊어적기) 이 리 싱각ㅎ엇(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의 사용)더니 네 니 르미 맞치 내 쑤(스계 합용병서)과 굿다 - 『중간노걸대언해』 상권, 10장</p>	<p>우리 서울 가면 어디에 머물러야 좋을까? 우리 순성문 관점에 가서 머물자. 저기서 말 시장 에 가기가 또 적이 가깝다. 네 말이 옳다. 나도 마음에 이리 생각하였는데 네 말이 마침 내 뜻과 같다.</p>
-----------------------------------------------------------------------------------------------------------------------------------------------------------------------------------------------------------------------------------------------------------------------------------------------------------------------------------------------------------------------------------------------------------------------	----------------------------------------------------------------------------------------------------------------------------------------------------------------------------------------------------------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대 국어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근대 국어 시기의 '싱각ㅎ엇더니'에는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 '-았-/-었-'이 쓰였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1) 중세 국어 문헌에 나오는 다음 단어들이 위 자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찾아보고, 현대 국어에서는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각해 보자.

중세 국어	근대 국어	현대 국어
셔를	서울('병'이 '[w]'로 변화)	서울('셔>서'로 단모음화)
동-	동-(구개음화)	동-(단모음화)
므슴	므움('△'소멸)	마음('소실)

(단어의 형태 변화와 관련하여, 자모음의 변천 외에도 구개음화, 단모음화와 같은 음운 변동에 대한 내용의 선지도 함께 출제되었습니다.)

(2) (1)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음과 모음의 변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괄호에 들어갈 말을 써넣어 보자.

- '병'은 양성 모음 앞에서는 'ㅍ', 음성 모음 앞에서는 '(ㅍ)'로 변화하였다. ← '셔를'을 통해 확인 가능함.
- '(△)'은 중세 국어 시기 말부터 근대 국어 시기 초의 기간에 걸쳐 아무런 흔적 없이 소멸되었다. ← '므슴'을 통해 확인 가능함.
- '·'는 첫째 음절에서는 '(ㅍ)'로,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ㅡ'로 변화하였다. ← '므슴'을 통해 확인 가능함.
- 모음 'ㅣ, ㅑ, ㅓ, ㅕ, ㅗ, ㅛ' 앞의 'ㄷ, ㅌ, ㅍ'은 '(ㅌ), ㅍ, ㅍ'으로 변화하였다. ← '동-'을 통해 확인 가능함.

학습 활동 분석 3

다음은 19세기 말에 발간된 『독립신문』 창간사의 일부이다. 잘 읽고, 아래의 활동을 통해 근대 국어의 특징을 알아보자.

→ 근대 국어의 문법적·표기적 특징을 탐구하는 활동

우리신문이 한문은 아니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 **거슨**(이어적기) **상하귀천이 다보게**(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보게) **흙**(ㅎ-+오-+음)이라 **쓰**(ㅅ계 합용 병서) 국문을 **이러케**(이어적기) **귀절을 써여 쓴즉**(띄어쓰기를 하는 것은) 아모라도 이신문 **[보기**(보-+기)가 쉽고 신문속에 잇는 말을 자세이 알아 보게 **흙**(ㅎ-+음)이라 **]**([]: 읽기 쉽고 뜻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함이다. - 띄어쓰기를 하게 된 이유) 각국에서는 사람들이 남녀 무론 하고 **본국 국문**(자국어)을 **몬저 비화**(먼저 배워) 능통한 후에야 외국 글을 **비오논**(배우는) 법인되 조선셔는 조선 국문은 아니 비오드리도 한문만 공부 하는 싸둑에 국문을 잘 아는 사람이 **드물미라**(이어적기. 드물-+음+이라) 조선 국문하고 한문하고 비교하여 보면 조선국문이 한문 보다 얼마가 **나흔거시**(이어적기) **무어신 고**(이어적기)하니 첫지는 **비호기**(비호-+기)가 쉬흔이 **도흔**(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음.) 글이요 들지는 이글이 조선글이니 조선 인민 들이 **알어서**(‘알아서’가 옳은 표기임.) **빅스올**(모든 일을. ‘빅스올’이 옳은 표기임. → 목적격 조사의 혼란) 한문되신 국문으로 써야 상하귀천이 모도보고 **알어보기**(‘알아보기’가 옳은 표기임. 알아보-+기)가 쉬홀터이라 한문만 늘써 버릇하고 국문은 **폐호**(사용하지 않음) 싸둑에 국문만쓴 글을 조선 인민이 **도 로혀**(오히려) 잘 아러보지 못하고 한문을 잘알아보니 그게 엇지 한심치 아니하리오

- 『독립신문』 창간사에서

(1) 위 자료에서 명사형 어미 '-음/-음'과 '-기'가 쓰인 예를 모두 찾아보자.

-음/-음: 흙이라, 흙이라, 드물미라 '-기': 보기가, 비호기가, 알어보기가

명사형 어미의 경우 중세 국어 시기에는 '-음/-음'이 주로 쓰였으나, 근대 국어 이후에는 '-기'가 널리 쓰이게 되었다.

(2) 주격 조사 '가'의 등장은 근대 국어의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위 자료에서 주격 조사 '가'가 쓰인 예를 모두 찾아보자.

보기가, 얼마가, 비호기가, 알아보기가

(3) 위 자료에서 띄어쓰기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고, **띄어쓰기의 장점(「독립신문」 창간사에서 국문체와 띄어쓰기를 택한 이유가 드러나는 구절을 찾도록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에 대하여 말해 보자.

또 국문을 이리케 귀절을 써여 쓴즉 아모라도 이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속에 잇는 말을 자세히 알게 함이라

(또 국문을 이렇게 구절을 떼어 쓴즉 아무라도 이 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 속에 잇는 말을 자세히 알아보게 함이라.)

→ 띄어쓰기는 [단어와 단어를 구분해 주고 문장의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독서 효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띄어쓰기의 장점) 현대의 맞춤법도 이러한 점을 위해 띄어쓰기를 채택하고 있다.

(4) 위 자료는 중세 국어와 비교할 때 끊어적기가 많이 나타나는 특징을 지닌다. 이어적기와 끊어적기의 장단점을 생각해 보고, **위 자료에서 끊어적기가 규칙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자.(자료에 나타나는 근대 국어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이어적기와 끊어적기, 거듭적기가 섞여서 나타났다.'의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함이라' 등에서 끊어적기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일그니' 등을 보면 이어적기의 표기 방식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자료에서는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모두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세 국어에서는 이어적기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근대 국어에 와서는 끊어적기가 점차로 많아졌다. 다만 근대 국어의 끊어적기는 일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
고2 연매
지학사**

고2 언어와 매체 지학사 | 4(1)(3) 근대 국어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근대 국어 시기(국어사 시대 구분 _단계. **별도의 지문 없이 국어사의 시대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는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안으로는 자생적인 근대 의식이 싹트는 한편, 밖으로는 중국을 통해 새로운 서양 문물과 과학 지식 및 기독교 문화가 유입되는 시기였다.]([]: 근대 국어 시기 국내외 사회적 변화 양상) 이와 같은 **언어 외적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이 시기의 우리말 또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면서 음운, 어휘, 문법 등 언어적인 면에서도 앞 시대의 국어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역사적으로 _____인 만큼 국어에도 상당한 _____가 일어났음.)

▶ _____의 시대 구분

전반적으로 근대 국어는 시기적인 측면에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을 뿐 아니라 **음운, 어휘, 문법 등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를 이어 주는 중요한 고리의 역할**(근대 국어 시기의 _____)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어의 기본적인 특징들은 대체로 고대 국어부터 현대 국어까지 공통되는 것이지만 **현대 국어의 특징이라 할 만한 것 가운데에는 근대 국어 시기의 변화에서 비롯된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이다.**(_____ 시기의 변화 거치며 _____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함.)

▶ 근대 국어 시기의 _____

1) 음운

중세 국어 시기를 거치면서 자음 '봉(15세기 중엽부터 '[_]'로 바뀌기 시작함), △(____세기 말~____세기 초에 걸쳐 소멸)'은 소멸되었고, [모음 '·'는 **16세기 말에 둘째 음절 이하에서 '—'로 변하였고**(_단계) 근대 국어 시기인 **18세기에 와서 첫째 음절에서 대체로 'ㅏ'로 변하였다.**(_단계)]([]: 모음 '·'의 변화로 나타난 변모 양상)

['·'의 소실]

- 1단계(16세기 말): 둘째 음절 이하 '·' → '—'

㉠ **ㅎ물며 >ㅎ물며, 다르다 >다르다**('_'가 '_'로 바뀌며 _____가 무너짐.)

- 2단계(18세기): 첫째 음절에서 '·' → 'ㅏ'

㉡ **리년 >래년(來年), 돌팡이 >달팡이**

▶ _____의 양상과 특징

'·'의 변화가 어느 정도 완성되자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모음 '·'의 변화 때문에. 소리와 달리 표기에서는 여전히 '·'가 사용됨. **근대 국어에서 대한 적절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서 '모음 '·'의 표기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의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하였다. **'·' 자체는 양성 모음으로서 모음 조화에서 음성 모음 '—'와 대립**(_____, _____ 등이 _____에 따라 사용됨.)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첫째 음절에서는 양성 모음,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음성 모음으로 변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_____가 잘 지켜지지 않게 된 이유) 자연스럽게 모음 조화를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모음 조화를 잘 지키던 'ㅁ술'(____+____)이란 단어가 '·' 소멸 과정을 겪은 후에 'ㅁ울'(____+____)이란 형태로 변하여 한 단어 내에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공존하는, 즉 모음 조화를 지키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

▶ '—' 변화로 나타난 변모 양상

근대 국어 시기에 발생한 구개음화는 자음의 변천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음운 현상이다. 이전 시기까지

'ㄷ, ㅌ'이 'ㅣ' 앞에서 그대로 소리 나던 것이 이 시기에 와서 'ㅈ, ㅊ'으로 음운 변화(근대 국어 시기의 _____ 현상. 현대 국어에서와 달리 _____에서도 변동이 일어남.)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 결과가 현대 국어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디다>지다[落], 티다>치다[打], 부터>부처[佛]'(_____의 결과가 반영된 상태로 단어의 형태가 고정됨. 현대 국어에서는 _____의 _____에서만 _____ 현상이 남아있음. **단어의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에서 "동-'이 '쫑-'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ㅣ, ㅌ, ㅋ, ㅍ, ㅍ' 앞의 'ㄷ'이 'ㅈ'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등에서 구개음화를 확인할 수 있다.

[구개음화]

끝소리가 '____', '____'인 형태소가 모음 '____'나 반모음 '____'로 시작되는 _____와 만나면 그것이 '____', '____'이 되거나, '____' 뒤에 _____ '____'가 올 때 '____'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____'이 '____'이 되는 현상. '굳이'가 '구지'로, '굳히다'가 '구치다'로 되는 것 따위이다.

▶ 근대 국어 시기에 발생한 _____ 현상

② 어휘

[어휘 면에서는 기존의 한자어에 더하여 **서양의 새로운 지식이 중국을 통해 유입**(_____에 영향을 준 역사적 상황. **근대 국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서 '중국을 통한 _____과 _____의 _____으로 새로운 어휘가 나타났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되는 과정에서 **번역 한자어**(_____)가 새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중국 이외에 **일본이나 서양과의 접촉을 통해 유입되는 새로운 어휘**(_____와 구분되는 _____)가 늘어난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다. '자명종(自鳴鐘)', '천리경(千里鏡)' 등이 근대에 새로 들어온 한자어이다.]([]: 근대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 _____을 가리키는 말이 _____로 유입됨.)

▶ 중국을 통한 _____의 유입 과정에서 _____의 유입이 증가함.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어휘 체계**(_____ 체계: _____, 한_어, _____)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두 계열에 더하여 일본과 서양의 외래어가 유입되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으며 이러한 양상은 **현대까지 지속**(현대 국어에서도 _____의 등장 등으로 인해 _____가 계속 추가되고 있음.)되고 있다.

▶ 근대 국어 시기의 _____가 _____체제로 굳어짐.

③ 문법

문법 변화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주격 조사 '가'의 등장**(근대 국어 문법 변화 ① - _____ 변화. **근대 국어 자료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서 '중세 국어 시기에 사용된 주격 조사 '이'가 모두 근대 국어 특징의 하나인 주격 조사 '가'로 통합되어 표기되었다.'**의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이다. [현대 국어에서 **선행되는 체언의 어말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근대 국어 시기 _____ '____'와 '____'가 교체되어 나타나는 언어 환경) 주격 조사 '이'와 '가'가 교체를 보이는 현상은 바로 이 변화에 말미암은 것이다.]([]: _____가 쓰이는 환경이 현대 국어와 동일해짐.) [대부분의 역사적 변화가 그러하듯이 새로운 주격 조사 '가'는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었다. 체언의 말음이 모음 'ㅣ'인 경우와 같이 일부 제한된 환경에서 나타나다가 서서히 그 쓰임을 넓혀 가서 모음 아래에서는 '가', 자음 아래에서는 '이'가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현대 국어와 달리 근대 국어 자료에서는 _____양상으로 인해 사용에 혼란이 있었음.)

▶ _____의 변화

또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 '-았-/-었-'이 이 시기에 확립**(근대 국어 문법 변화 ②. 근대 국어 _____표현 방식)되었으며, 앞 시기에 **객체 높임법이 사용되던 선어말 어미 '-습-'은 상대 높임법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의 변화**(근대 국어 문법의 변화 ③. 중세 국어에서 _____을 나타내던 '-____'의 형태가 현대 국어에서는 _____을 나타내는 _____'-'에 남아 있게 됨.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높임 표현을 비교하며, 근대 국어 시기에 일어났을 변화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를 보인다. **명사형 어미 '-기'가 널리 쓰이게 된 것**(근대 국어 문법의 변화 ④. 중세 국어 시기에 사용되었던 _____'-'/'-'의 형태가 '-____/____'으로 바

핍.)도 근대 국어 시기의 중요한 특징이다.

▶ 근대에 변모된 _____ 표현 방식

4] 표기법

중세 국어 시기에 **음소적 원리와 음절적 원리**(중세 국어 시기의 _____의 원리)에 따라 정연하게 지켜지던 표기법은 근대에 와서 상당히 혼란한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사름미'로 표기되던 것이 '사롬이'로 표기되기도 하고 '사롬미'와 같이 표기되기도 하였다. '사름미'와 같은 표기를 **이어적기**(한 음절의 _____을 다음 자의 _____으로 내려서 적음.), '사롬이'와 같은 표기를 **끊어적기**(여러 형태소가 연결될 때 각 _____과 _____단위로 밝혀 적음.), '사롬미'와 같은 표기를 **거듭적기**(_____와 _____가 동시에 나타남.)라 한다.]([]: 근대 국어 시기에 나타난 표기법 - 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_), **근대 국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서 '중세의 _____ 표기가 현대의 _____ 표기로 가는 _____로 _____ 표기가 나타났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 근대 국어 시기의 표기법의 변화 - _____와 _____의 _____양상

근대 국어 시기의 경우 **한 문헌 안에서도 이어적기, 거듭적기, 끊어적기가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중세 국어의 _____에서 현대 국어의 _____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_____적 표기가 나타남.) 『훈민정음』을 기준으로 정연한 표기 방식을 보이던 중세 국어 시기와 달리 이 시기에는 **표기법의 기준이 될 만한 규범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근대 국어 시기에 표기에 _____이 나타난 이유) 이러한 양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 근대 국어 시기의 _____

학습 활동 확인 1

다음 활동을 통해 **근대 국어 시기에 일어난 어휘의 의미 변화**(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보자.

(1) 다음은 중세 국어에서 근대 국어로 바뀌는 동안 의미 변화가 있었던 단어들이다. 빈칸을 채우고 의미 변화를 확인해 보자.

	중세 국어	근대 국어
어엿브다	불쌍하다	_____
어리다	어리석다	_____

(2) 다음은 근대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형태가 같지만 그 의미가 변한 단어들이다. 빈칸을 채우고 의미 차이를 확인해 보자.

	중세 국어	근대 국어
인정(人情)	벼슬아치들에게 몰래 주던 선물.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_____이나 _____.
방송(放送)	죄인을 감옥에서 나가도록 풀어 주던 일.	라디오나 텔레비전 따위를 통하여 널리 듣고 볼 수 있도록 _____이나 _____을 전파로 _____는 일.

→ (1)과 (2)에서 제시된 단어들은 모두 의미 변화의 양상(_____, _____, _____) 중 '의미의 _____'에 해당함.

(예시 단어를 단어의 의미 변화 양상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 활동 확인 2

다음은 『중간노걸대언해』의 한 부분이다. 잘 읽고 아래의 활동을 통해 근대 국어의 특징을 알아보자.

→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의 음운의 변천을 이해하는 활동

우리 서울 가면 어디 머므러야 () 죠흐료 우리 順城門(순성문) 官店(관점)에 가서 머므자 저괴셔 몰 저제 가기 쏘 () 저기 () 갖가오니라 네 니르미 올타 () 나도 므옴애 () 이리 심각 흐 엇 ()의 사용)더니 네 니르미 맞치 내 쑏 ()과 굿다 - 『중간노걸대언해』 상권, 10장	우리 서울 가면 어디에 머물러야 좋을까? 우리 순성문 관점에 가서 머물자. 저기서 말 시장에 가기가 또 적이 가깝다. 네 말이 옳다. 나도 마음에 이리 생각하였는데 네 말이 마침 내 뜻과 같다.
-----------------------------------------------------------------------------------------------------------------------------------------------------------------------------------------------------------------------------------------------------------	--------------------------------------------------------------------------------------------------------------------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대 국어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근대 국어 시기의 '심각~~흐~~엇더니'에는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 '-았-/-었-'이 쓰였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1) 중세 국어 문헌에 나오는 다음 단어들이 위 자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찾아보고, 현대 국어에서는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각해 보자.

중세 국어	근대 국어	현대 국어
셔블	서울(이 로)	(' > '로)
동-	()	-()
므옴	()	()

(단어의 형태 변화와 관련하여, 자모음의 변천 외에도 구개음화, 단모음화와 같은 음운 변동에 대한 내용의 선지도 함께 출제되었습니다.)

(2) (1)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음과 모음의 변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괄호에 들어갈 말을 써넣어 보자.

- '빙'은 양성 모음 앞에서는 'ㅍ', 음성 모음 앞에서는 '()'로 변화하였다. ← '()'을 통해 확인 가능함.
- '()'은 중세 국어 시기 말부터 근대 국어 시기 초의 기간에 걸쳐 아무런 흔적 없이 소멸되었다. ← '()'을 통해 확인 가능함.
- '·'는 첫째 음절에서는 '()'로,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ㅡ'로 변화하였다. ← '()'을 통해 확인 가능함.
- 모음 'ㅣ, ㅑ, ㅓ, ㅕ, ㅗ, ㅛ' 앞의 'ㄷ, ㅌ, ㅍ'은 '()', ㅈ, ㅊ'으로 변화하였다. ← '()'을 통해 확인 가능함.

학습 활동 확인 3

다음은 19세기 말에 발간된 『독립신문』 창간사의 일부이다. 잘 읽고, 아래의 활동을 통해 근대 국어의 특징을 알아보자.

→ 근대 국어의 문법적·표기적 특징을 탐구하는 활동

우리신문이 한문은 아니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 거슨() 상하귀천이 다보게() 을 가리지 않고 () 가 보게) **흙**(**ㅎ--오--음**)이라 **쓰**(**ㅅ계 합용 병서**) 국문을 **이러케**() **귀절을 떼여 쓴즉**() 를 하는 것은) 아모라도 이신문 **[보기**(**보--기**)가 쉽고 신문속에 잇는 말을 자세이 알아 보게 **흙**(**ㅎ--오--음**)이라](**[]**): () 고 () 기 () 게 하기 위함이다. - () 를 하게 된 이유) 각국에서는 사람들이 남녀 무론하고 **본국 국문**() 을 **몬저 비화**() 능통한 후에야 외국 글을 **비오논**() 법인 디 조선셔는 조선 국문은 아니 비오드리도 한문만 공부 하는 싸둑에 국문을 잘아는 사람이 **드물미라**() . **드물--** () +이라) 조선 국문하고 한문하고 비교하여 보면 조선국문이 한문 보다 얼마가 **나흔거시**()) **무어신고**() 하니 첫지는 **비호기**(**비호--** ())가 쉬흔이 **도흔**() 가 적용되지 않음.) 글이 요 들지는 이글이 조선글이니 조선 인민 들이 **알어서**(**'알--** () '가 옳은 표기임.) **빅스을**(모든 일을. '빅스--'이 옳은 표기임. → () 의 혼란) 한문디신 국문으로 써야 상하귀천이 모도보고 **알어보기**(**'--** () '가 옳은 표기임. **알아보--** ())가 쉬흔터이라 한문만 늘써 버릇하고 국문은 **폐흔**() 싸둑에 국문만 쓴 글을 조선 인민이 **도로혀**() 잘 아러보지 못하고 한문을 잘알아보니 그게 엇지 한심치 아니하리 요

- 『독립신문』 창간사에서

(1) 위 자료에서 명사형 어미 '-음/-음'과 '-기'가 쓰인 예를 모두 찾아보자.

-음/-음': (), (), () '-기': (), (), ()

명사형 어미의 경우 중세 국어 시기에는 '-__-__'이 주로 쓰였으나, 근대 국어 이후에는 '-__'가 널리 쓰이게 되었다.

(2) 주격 조사 '가'의 등장은 근대 국어의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위 자료에서 주격 조사 '가'가 쓰인 예를 모두 찾아보자.

(3) 위 자료에서 띄어쓰기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고, **띄어쓰기의 장점(『독립신문』 창간사에서 국문체와 띄어쓰기를 택한 이유가 드러나는 구절을 찾도록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에 대하여 말해 보자.

→ 띄어쓰기는 **[]** 와 () 를 구분해 주고 () 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 를 () 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 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 : 띄어쓰기의 장점)** () 도 이러한 점을 위해 () 를 채택하고 있다.

(4) 위 자료는 중세 국어와 비교할 때 끊어적기가 많이 나타나는 특징을 지닌다. 이어적기와 끊어적기의 장단점을 생각해 보고, **위 자료에서 끊어적기가 규칙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자.(자료에 나타나는 근대 국어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이어적기와 끊어적기, 거듭적기가 섞여서 나타났다.'의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흙이라' 등에서 () 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일그니' 등을 보면 () 의 표기 방식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자료에서는 () 와 () 가 모두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세 국어에서는 () 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근대 국어에 와서는 () 가 점차로 많아졌다. 다만 근대 국어의 () 는 일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
고2 연매
지학사

고2 언어와 매체 지학사 | 4(1)(3) 근대 국어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근대 국어

- 17세기 초~19세기 말까지에 해당됨.
- 음운, 어휘, 문법 등 여러 측면에서 국어의 모습이 크게 변화하며,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를 이어 주는 중요한 고리의 역할을 함.

2. 근대 국어 시기의 음운적 특징

‘병, △’, ‘ㅁ’의 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세 국어 시기를 거치면서 자음 ‘병, △’은 소멸됨. • 모음 ‘ㅁ’는 16세기 말 둘째 음절 이하에서 ‘ㅁ’로, 18세기에 첫째 음절에서 대체로 ‘ㅍ’로 변함.
모음 조화의 약화	<p>모음 조화에서 음성 모음 ‘ㅁ’와 대립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ㅁ’의 소멸로 모음 조화를 지키지 못하게 됨. 예) 마술 → ‘ㅁ’ 소멸 → 마을</p>
구개음화	<p>‘ㄷ, ㅌ’이 ‘ㅍ’ 앞에서 그대로 소리 나던 것이 근대 국어 시기에 ‘ㅌ, ㅍ’으로 음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 결과가 현대 국어까지 이어짐.</p> <p>예) 디다>지다, 티다>치다, 부터>부처</p>

3. 근대 국어 시기의 어휘적 특징

- 서양의 새로운 지식이 중국을 통해 유입되는 과정에서 많은 번역 한자어가 새로 유입되었음.
- 중국 이외의 일본이나 서양과의 접촉을 통해 유입되는 새로운 어휘가 늘어남.
- 예) ‘자명종(自鳴鐘)’, ‘천리경(千里鏡)’
- 우리나라의 어휘 체계: 고유어와 한자어의 두 계열에 더하여 일본과 서양의 외래어가 유입되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4. 근대 국어 시기의 문법적 특징

- 주격 조사 ‘가’의 등장: 주격 조사 ‘가’가 체언의 말이 모음 ‘ㅁ’인 경우와 같이 일부 제한된 환경에서 나타나다가 서서히 그 쓰임을 넓혀 가서 모음 아래에서는 ‘가’, 자음 아래에서는 ‘이’가 쓰임.
-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 ‘-았- / -었-’이 이 시기에 확립됨.
- 객체 높임법이 사용되던 선어말 어미 ‘-습-’은 상대 높임법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변화됨.
- 명사형 어미 ‘-기’가 널리 쓰이게 됨.

5. 근대 국어 시기의 표기법

- 중세 국어 시기에 음소적 원리와 음절적 원리에 따라 정연하게 지켜지던 표기법이 근대에 와서 혼란한 양상을 보임. 예) 중세 국어: 사름미 → 근대 국어: ‘사름이’ 또는 ‘사름미’와 같이 표기
- 한 문헌 안에서도 이어적기, 거듭적기, 끊어적기가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음.
- 이어적기(연철): 한 음절의 중성을 다음 자의 초성으로 내려서 적음. 예) 말쌈미(말쌈+이)
- 끊어적기(분철): 여러 형태소가 연결될 때 각 음절과 성분 단위로 밝혀 적음. 예) 말쌈이(말쌈+이)
- 거듭적기(혼철): 과도기적 표기로 이어적기와 끊어적기를 혼용하여 적음. 예) 말쌈미(말쌈+이)

TEST 1단계

1. 근대 국어

- 1□세기 초~1□세기 말까지에 해당됨.
- □운, □휘, □법 등 여러 측면에서 국어의 모습의 크게 □화하며, □세 국어와 □대 국어의 □이를 이어 주는 중요한 □리의 역할을 함.

2. 근대 국어 시기의 음운적 특징

‘□, □’, ‘□’의 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 □어 시기를 거치면서 자음 ‘□, □’은 소멸됨. • 모음 ‘□’는 1□세기 말 □째 음절 이하에서 ‘□’로, 1□세기에 □째 음절에서 대체로 ‘□’로 변함.
□음 □화의 약화	□음 조화에서 음□ 모음 ‘□’와 대립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의 소멸로 □음 □화를 지키지 못하게 됨. ㉠ 막술 → ‘·’ 소멸 → 마을
구□□화	‘□, □’이 ‘□’ 앞에서 그대로 소리 나던 것이 근대 국어 시기에 ‘□, □’으로 음□ □화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 결과가 현대 국어까지 이어짐. ㉡ 디다>□다, 티다>□다, 부터>부□

3. 근대 국어 시기의 어휘적 특징

- □양의 새로운 지식이 □국을 통해 □입되는 과정에서 많은 □역 한□어가 새로 □입되었음.
- 중국 이외의 □본이나 □양과의 접촉을 통해 유□되는 새로운 어휘가 늘어남. ㉢ ‘자명종(自鳴鐘)’, ‘천리경(千里鏡)’
- 우리나라의 어휘 체계: 고□어와 한□어의 두 계열에 더하여 □본과 □양의 외□어가 유입되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4. 근대 국어 시기의 문법적 특징

- □격 □사 ‘□’의 등장: □격 □사 ‘□’가 체언의 말음이 모음 ‘□’인 경우와 같이 일부 제한된 환경에서 나타나다가 서서히 그 쓰임을 넓혀가서 □음 아래에서는 ‘□’, 자□ 아래에서는 ‘□’가 쓰임.
- □거 □제를 표현하는 □어□ 어□ ‘-□-/-□-’이 이 시기에 확립됨.
- 객□ 높□법이 사용되던 □어□ 어□ ‘-습-’은 상□ 높□법을 나타내는 □어□ 어□로 변화됨.
- □사□ 어□ ‘-□’가 널리 쓰이게 됨.

5. 근대 국어 시기의 표기법

- 중세 국어 시기에 □소적 원리와 □절적 원리에 따라 정연하게 지켜지던 표기법이 근대에 와서 □란한 양상을 보임. ㉣ 중세 국어: 사름미 → 근대 국어: ‘□롬□’ 또는 ‘□롬□’와 같이 표기
- 한 문헌 안에서도 □어적□, □듭적□, □어적□가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음.
 - □어적□(□철): 한 음절의 □성을 다음 자의 □성으로 내려서 적음. ㉤ 말쌈미(말쌈+이)
 - □어적□(□철): 여러 형태소가 연결될 때 각 □절과 □분 단위로 밝혀 적음. ㉥ 말쌈이(말쌈+이)
 - □듭적□(□철): □도□적 표기로 □어적□와 □어적□를 □용하여 적음. ㉦ 말쌈미(말쌈+이)

TEST 2단계

1. 근대 국어

- □□세기 초~□□세기 말까지에 해당됨.
- □□, □□, □□ 등 여러 측면에서 국어의 모습이 크게 □□하며, □□ 국어와 □□ 국어의 □□를 이어 주는 중요한 □□의 역할을 함.

2. 근대 국어 시기의 음운적 특징

'□, □', '□'의 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시기를 거치면서 자음 '□, □'은 소멸됨. • 모음 '□'는 □□세기 말 □□ 음절 이하에서 '□'로, □□세기에 □□ 음절에서 대체로 '□'로 변함.
□□ □□의 약화	□□ □□에서 □□ 모음 '□'와 대립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의 소멸로 □□ □□를 지키지 못하게 됨. ㉠ ㅁ술 → '·' 소멸 → 마을
□□□□	'□, □'이 '□' 앞에서 그대로 소리 나던 것이 근대 국어 시기에 '□, □'으로 □□ □□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 결과가 현대 국어까지 이어짐. ㉠ 디다>□□, 티다>□□, 부텨>□□

3. 근대 국어 시기의 어휘적 특징

- □□의 새로운 지식이 □□을 통해 □□되는 과정에서 많은 □□ □□□가 새로 □□되었음.
- 중국 이외의 □□이나 □□과의 접촉을 통해 □□되는 새로운 어휘가 늘어남.
㉠ '자명종(自鳴鐘)', '천리경(千里鏡)'
- 우리나라의 어휘 체계: □□□와 □□□의 두 계열에 더하여 □□□□의 □□□□가 유입되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4. 근대 국어 시기의 문법적 특징

- □□ □□ '□'의 등장: □□ □□ '□'가 체언의 말음이 모음 '□'인 경우와 같이 일부 제한된 환경에서 나타나다가 서서히 그 쓰임을 넓혀가서 □□ 아래에서는 '□', □□ 아래에서는 '□'가 쓰임.
- □□ □□를 표현하는 □□□ □□ '-□-/-□-□-'이 이 시기에 확립됨.
- □□ □□□이 사용되던 □□□ □□ '-□-'은 □□ □□□을 나타내는 □□□ □□로 변화됨.
- □□□ □□ '-□'가 널리 쓰이게 됨.

5. 근대 국어 시기의 표기법

- 중세 국어 시기에 □□적 원리와 □□적 원리에 따라 정연하게 지켜지던 표기법이 근대에 와서 □□한 양상을 보임. ㉠ 중세 국어: 사르미 → 근대 국어: '□□□' 또는 '□□□'와 같이 표기
- 한 문헌 안에서도 □□□□, □□□□, □□□□가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음.
 - □□□□(□□): 한 음절의 □□을 다음 자의 □□□□으로 내려서 적음. ㉠ 말쌩미(말쌩+미)
 - □□□□(□□): 여러 형태소가 연결될 때 각 □□□□과 □□□□ 단위로 밝혀 적음. ㉠ 말쌩미(말쌩+미)
 - □□□□(□□): □□□□적 표기로 □□□□□와 □□□□□를 □□하여 적음. ㉠ 말쌩미(말쌩+미)

TEST 3단계

1. 근대 국어

- __세기 초~__세기 말까지에 해당됨.
- ____, ____, ____ 등 여러 측면에서 국어의 모습이 크게 ____하며, ____ 국어와 ____ 국어의 ____를 이어 주는 중요한 ____의 역할을 함.

2. 근대 국어 시기의 음운적 특징

‘__’, ‘__’, ‘__’의 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____ 시기를 거치면서 자음 ‘__’, ‘__’은 소멸됨. • 모음 ‘__’는 __세기 말 ____ 음절 이하에서 ‘__’로, __세기에 ____ 음절에서 대체로 ‘__’로 변함.
____의 약화	<p>____에서 ____ 모음 ‘__’와 대립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__’의 소멸로 ____를 지키지 못하게 됨. ㉠ ㅁ술 → ‘·’ 소멸 → 마을</p>
____	<p>‘__’, ‘__’이 ‘__’ 앞에서 그대로 소리 나던 것이 근대 국어 시기에 ‘__’, ‘__’으로 ____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 결과가 현대 국어까지 이어짐.</p> <p>㉠ 디다> ____, 티다> ____, 부터> ____,</p>

3. 근대 국어 시기의 어휘적 특징

- ____의 새로운 지식이 ____을 통해 ____되는 과정에서 많은 ____가 새로 ____되었음.
- 중국 이외의 ____이나 ____과의 접촉을 통해 ____되는 새로운 어휘가 늘어남.
- ㉠ ‘자명종(自鳴鐘)’, ‘천리경(千里鏡)’
- 우리나라의 어휘 체계: ____와 ____의 두 계열에 더하여 ____과 ____의 ____가 유입되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4. 근대 국어 시기의 문법적 특징

- ____ ‘__’의 등장: ____ ‘__’가 체언의 발음이 모음 ‘__’인 경우와 같이 일부 제한된 환경에서 나타나다가 서서히 그 쓰임을 넓혀 가서 ____ 아래에서는 ‘__’, ____ 아래에서는 ‘__’가 쓰임.
- ____를 표현하는 ____ ‘-__-/-__-’이 이 시기에 확립됨.
- ____이 사용되던 ____ ‘-__-’은 ____을 나타내는 ____로 변화됨.
- ____ ‘-__’가 널리 쓰이게 됨.

5. 근대 국어 시기의 표기법

- 중세 국어 시기에 ____적 원리와 ____적 원리에 따라 정연하게 지켜지던 표기법이 근대에 와서 ____한 양상을 보임. ㉠ 중세 국어: 사름미 → 근대 국어: ‘__’ 또는 ‘__’와 같이 표기
- 한 문헌 안에서도 ____, ____, ____가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음.
- ____ (____): 한 음절의 ____을 다음 자의 ____으로 내려서 적음. ㉠ 말쌈미(말쌈+이)
- ____ (____): 여러 형태소가 연결될 때 각 ____과 ____단위로 밝혀 적음. ㉠ 말쌈이(말쌈+이)
- ____ (____): ____적 표기로 ____와 ____를 ____하여 적음. ㉠ 말쌈미(말쌈+이)